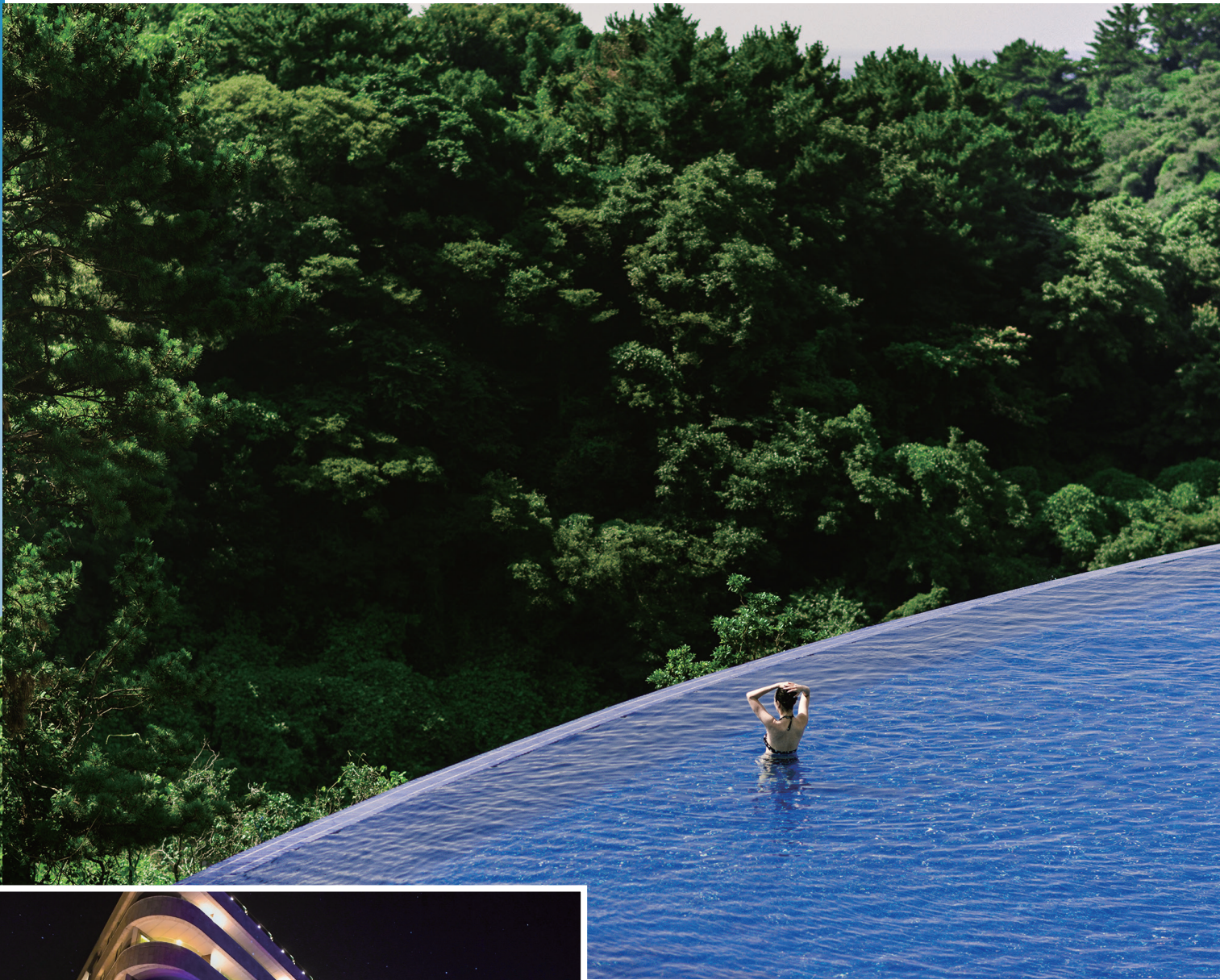




SPRING INFINITI

제주가 드러내지 않은 그 자리에,
히든 클리프 호텔&네이처가 있다.

Text Ji Woang Choi



봄에는 늘 다른 마음을 품는다. 그게 무슨 마음이나고 물으신다면, 결국 우물쭈물하고 말 거면서 또 그런다. 4월에는 사랑에 빠질 예정인데, 기왕이면 그이와 어디로든 떠날 마음을 품는다.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주의 봄은 어떤 얼굴일까, 사랑하는 사람과 그 섬을 떠다니는 일은 또 얼마나 달콤할까.

중문 예레생태지역의 원초적인 자연의 품에, 히든 클리프 호텔&네이처는 불시착한 우주선처럼 자리 잡고 있다. 세 방향으로 쪽쪽 뻗은 Wing 구조의 객실 발코니에서는 한라산, 바다, 계곡, 주변의 작은 마을이 한눈에 드는데, 주변으로 돌 무늬와 결이 자연스럽게 도드라지는 외벽, 역새발이 가득한 오름 정원, 별집을 담은 주차장이 모나거나 잘난 척하지 않고 스며들어 있다. 호텔 내부는 또 어떤가 하면, 국내 최장 47m 인피니티 풀에 사계절 내내 따뜻한 물이 담긴다. 그 끝에서 바라본 숲은 1년 내내 한순간도 같은 날이 없으니, 숲은 늘 새로운 얼굴을 내보인다. 또 제주 유일의 록시땅 스파인 '릴 스파 바이 록시땅'은 제주의 따뜻한 자연과 건강한 에너지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스파의 감성을 내세운다.

히든 클리프 호텔&네이처에서는 4월과 사랑에 빠진 연인을 위해 '러브 체크업' 커플 패키지를 선보인다.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호텔을 둘러싼 180만 년 된 원시림이 내려다보이는 디럭스 클리프 뷰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, 인피니티 풀이 발 아래에 깔린 레스토랑에서 오붓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. 블루면 플라워 꽃다발 서비스를 통해 방 안 가득 꽃향기를 풍길 수도 있다.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오후 2시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. 아침 식사 후 4km에 이르는 호텔 산책로를 걷거나,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인피니티 풀 이쪽과 저쪽을 원없이 헤엄쳐도 2시는 아직 저만큼 멀었다. 02-2277-9999. www.hiddencliff.kr 